▩ 씅스끄링뜨와 데바나가리(Devanagari)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대다수 인도언어들의 조상이며 범어(梵語)라고도 한다. 기원전 500년경 빱이니(Pāṇini)는 3,959개의 sūtra로 구성된 Aṣṭādhyāyī(여덟 장의 책)라는 경전을 편찬하여 고전 산스크리트어 문법을 확립하였으며, 언어학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데바나가리는 Sanskrit, Pali, Hindi, Marathi, Nepali 등 여러 대언어를 기록하는 문자로 35개의 자음과 14개의 모음(svara- 장/단 모음 10개와 2개의 r, 2개의 l)과 aṃ(अं) aḥ(अः)을 가진다.
문자를 소리나는대로 적는 것을 표음주의라 하고, 실질형태소(어근)을 밝혀 표기하는 것은 형태주의라고 하는데. 한글맞춤법 총칙 1항은 "소리나는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니, 문장마다 바뀌는 어중어말을 풀어쓰는 것(연철)은 지양하고, 단어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어법에 맞도록'이라 하여, 표음주의와 형태주의 양쪽을 절충해 놓았다.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를 분철하면서도[46] 되도록이면 소리나는대로 적으라는 것이다. 반면 산스크리트는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음운변화(sandhi)를 표기에 모조리 반영하는 '표음주의'를 채택하여, 한국어로 예를 들자면 '저곳에불이있다'라고 적지 않고 '저고세부리읻따'라고 표기한다. 장모음 발음은 현대 힌두어(hindi, urdu)에서는 ऐ [ɛː ㅐ] औ [ɔː ㅗ]로 차이가 있다.

	무성·무기	무성·유기	유성·무기	유성·유기	비음(종성)			접근음		무성마찰		유성마찰
velar	ㄲ क ka	ㅋ ख kha	ㄱ ग ga	그 घ gha	-ㅇ ङ ṅa	+ ㅎ (다음음절 초성)	+ ㅇ (다음음절 초성)	(반모음)		hun-min.com		ㅎ ह /h~ɦ/
palatal	ㅉ च ca	ㅊ छ cha	ㅈ ज ja	ㅉ झ jha	-ㄴㅎ ञ ña			-j य ya		셔 श śa [ɕ]		변형자 (권설음)
retroflex △	떵 ट ṭa	텋 ठ ṭha	덩 ड ḍa	뎡 ढ ḍha	-ㄴㅿ ण ṇa			ㄹㄹㅎ र ra		셩 ष ṣa [ʂ]		ㄹㅎ ड़ ṛa /ɽ/ ㄹㅎ ढ़ ṛha
dental	ㄸ त ta	ㅌ थ tha	ㄷ द da	드 ध dha	-ㄴ न na			ㄹㄹ ल la		써 स sa [s]		ㄹㅿ ळ ḷ l[IPA]
labial	ㅃ प pa	ㅍ फ pha	ㅂ ब ba	브 भ bha	-ㅁ म ma			ㅸ·ㅝ व v·w		long	short	모음
형(形)	ⒷⒷ	Ⓑ (가획)	Ⓑasic	Ⓑ	⇧ anusvāra	⇧ (visarga/candrabindu)				ㅏ आ ā	ㅓ/ㅏ अ a	syllabic trill ㅱ
Etc.	क् + ष Kṣa क्ष 끄셩	त् + र Tra त्र 뜨러	ज + ञ Jña ज्ञ (Gya)슨혀	श् + र Shra श्र 쉬러	+ ㅇ ㄴ ㅁ ◌̇ ṃ	ः ḥ	◌ॅ	벵골	힌디	ㅣ ई ī	ㅢ इ i	ㄹ으 ऋ ṝ
								oi	ㅐ ɛː	ㅜː ऊ ū	ㅜ उ u	ㄹ→ㄹㄹ ॠ ṝ
								ou	ㅓ ɔː	ㅚ ऐ ai	ㅖ ए e	ㄹㅿ ऌ ḹ
										ㅗ औ au	ㅗ ओ o	ㄹㅿ ॡ ḹ

◌ः (visarga)는 직전 모음에 'ㅎ' ex) शक्ति: śaktiḥ 샬티히 उभयोः ubhayoḥ 우브요호 , पँ (chandra-bindu)는 종성 'ㅎㄴ' 또는 다음음절 초성에 'ㅇ'를 표시한다.

46) 이런 절충적 노력은 어미가 변화해도 어근의 DNA가 삭제되지 않도록 한글이 종성에서 ㄺ · ㄵ · ㄶ · ㄻ · ㄼ · ㄽ · ㄾ · ㄿ · ㅀ · ㅄ 같은 겹자모를 유지하는 것이다.

위 표의 데바나가리→ 정음전환은 글자수가 늘어지지 않고, 첨자가 필요없는 방식을 중시하였다. 데바나가리를 正音표기 한다는 것은 한국인 유저상황이니 별도의 입력창 없이 ㅎ글워드자판만 사용하는 '번거롭지 않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IAST에서 아래점 ̣을 찍어 표시하는 권설음(retroflex)은 '종성ㅿ'를 붙이고, gha jha처럼 기식으로 늘어지는 곳은 'ㅡ'를 사용하였다. 현대의 변형자 ॾ ॿ는 ᄅᇫ ᄅᇬ로 권설음임을 표시하고, 첨자 ः: पँ는 종성 ㅎ/ㆆㄴ로 표기하였다. 훈민정음 책에서 데바나가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말소리를 표기하는데 오만가지 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한 엄격한 할아버지가 만든거 같은 시스템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우선 알고, 그것과 후대에 간소화된 형태의 알파벳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포크3개, 나이프3개가 놓인 풀코스 만찬을 즐길 일은 드물지만, 2-3가지 dish만 골라서 간소하게 먹더라도 원래의 풀코스가 어떤 형식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결혼식도 전통결혼식이 가지는 복잡한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원래는 이런 형태였다'는 것을 알아야 절차들이 가진 의의를 놓치지 않고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 속의 전청ㄱㄷㅂㅈ는 무성·무기(voiceless unaspirated)에 있어야 할텐데. 경음화된 ㄲㄸㅃㅉ가 무성무기를 채우고 있다. 正音의 차청ㅋㅌㅍㅊ는 무성·유기(voiceless aspirated)을 채우고 있다. 불청불탁(ㆁㄴㄹㅁㅿㅇ)은 비음과 접근음쪽에 있다. 흔히 g/d/b/z로 표기하며 현대한글에서는 마땅한 세트가 없는 유성자음(유성·무기)도 데바나가리 할배는 다 챙기고 있다. 무엇보다 모음들 사이에서 자음2개가 연접할 때마다 그것을 36x36=1296개의 복자음을 새로 디자인하여 해결(?)하였다.



正音으로 치면 자음17x자음17가 만나는 모든 경우에 대해 다시 새로운 자음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두뇌인지 컴퓨터의 사고방식인지 고민될 정도로 신박하다. 한글을 쓰며 자음들이 충돌할 때마다 소리나는 대로 적는지 어근을 밝혀 적을지 때때로 고민하던 학생들의 방황을 일시에 해결하고 (사실 해결되지도 않지만) 싼스끄리뜨를 배우는데 10년 세월이 걸리게 만든다. 한국도 신라-고려시대부터 유구한 불교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범어로 쓰여진 불교경전을 배우려던 승려가 이 광경을 보고 "(데브)나가리 됐네~!" 라고 외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남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पं	anusvāra	모음에 비음종성을 붙여라		-ं -ङ -ञ -न -म
पः	visarga	모음 뒤에 소리없는 숨을 내쉼	[pəh]	-ह ह(뒷음절 초성)
पँ	candrabindu	모음을 비음화	[pə̃]	-हन ं(뒷음절 초성)
पऩ	nuqta	음을 반절만 낸다. (내다 만다)		ज→ ज़ za फ्र→ फ़ fa क़ [q] ख़ [x] ग़ [ɣ]
पऽ	avagraha	장모음	[pə:]	과거 역할은 अ(a)음의 탈락표기

데바나가리는 자음만 유성·무성 유기·무기 풍성한게 아니고, 모음길이나 모음의 끝단처리 또한 각종 첨자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엄지족 손주들은 첨자를 극혐하지만 데바나가리 할매는 비녀·노리개와 어디 갈때마다 풀어지는 옷고름이 주렁주렁 달린 것이 제대로 나를 expression하는 옷차림이라 한다. 正音세계의 시각으로 보면 '초성+중성'까지가 사람 두상인 것이고. 거기에 위 ◌̇ 아래 ◌̣ 옆에 ◌̽ 댕기ऽ 가채◌ु 을 가지고 헤어스타일을 치장하고 있다. 가장 기본스타일인 ◌ं하나 위에 올린 anusvāra은 -ं-ञ-न-म 중에서 종성하나를 장착하라는 뜻인데. 그중 무엇이 될지는 뒷음절의 초성종류가 결정한다. velar계열이면 -ं, palatal계열이면 -ञ, retroflex면 -ञ , dental이면 -न, labial이면 -म로서 뒷음절 초성에서 만날 남자의 드레스코드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이고 정음-자음분류표의 입장에서는 불청불탁字 중 하나를 종성으로 삼는 것이다.

पं가 헤어스타일이라면 पः पँ प पऽ는 머리길이(끝음처리)를 말하고 있다. पः는 소리없는 숨을 내쉬어야 하니 반박자 쉬며 읽어야 하고, पऽ는 온전히 한박자 띠어야 한다.
댕기ऽ 나 가채◌ु 를 올렸다는 것은 일단 스포츠머리는 아니고 장발인 것이다.
正音에서는 알머리ㅇ, 망건 ㆆ, 갓 ㅎ의 순서대로 종성의 비음쌓기가 높아지고 있다.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पः पँ
全淸	ㄱ君	ㄷ斗	ㅂ彆	ㅈ卽 ㅅ戌	ㆆ挹
次淸	ㅋ快	ㅌ呑	ㅍ漂	ㅊ侵	ㅎ虛
全濁	ㄲ虯	ㄸ覃	ㅃ步	ㅉ慈 ㅆ邪	ㆅ洪
不靑不濁 पं	ㅇ業	ㄴ那 ㄹ閭(반설)	ㅁ彌	ㅿ穰(반치)	ㅇ欲

데바나가리 문자의 형태 중에도 正音과 비교해 볼만한 점이 있다. ㄴ→ㄷ ㅁ→ㅂ ㅇ→ㆆ 처럼 기본자에 가획하면 전청이 되는 것과 달리. 어금니音에서는 ㆁ→ㄱ가 되어 ㆁ가 매우 생소한 형태로 제자되었고, 이는 어금니계열이라기 보다 ㆆㅎㅇ가 있는 후음계열처럼 보였는데. ㆁ ङ ㅎ ह 가 유사한 모양인 점과 ㆁ ङ 둘다 다른 글자와 달리 ・있는 異體字

> ㅂ/ㅸ에 해당하는 자형이 비슷한 점. 반면 로마자 b/v는 자형이 전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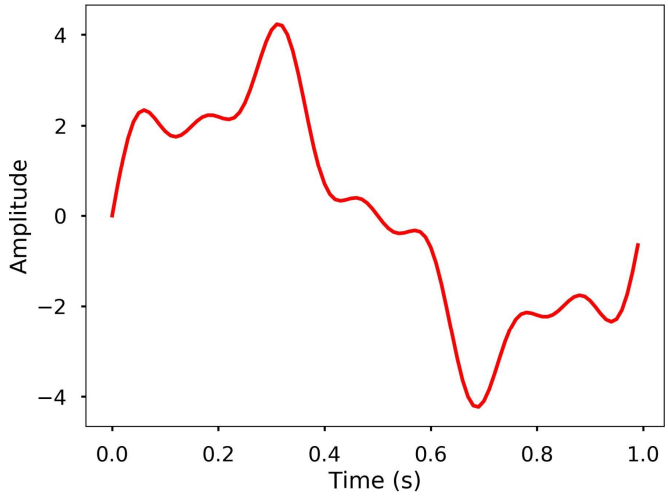
> ㅁ을 사선으로 자르면 ㄱㄴ으로 나뉜다는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데바나가리 또한 ग+न = म 으로 되어 있다는 점

> 수직-수평선으로 디자인 된 ㄱㄴㅁ는 ग न म이고, 사선이 들어간 ㅅ이 स라는 점

ㆁ ङ ṅa	ㅎ ह ha	ㅂ ब ba	ㅸ व va
ㄱ ग ga	ㄴ न na	ㅁ म ma	ㅅㅅ स sa

휴가기간에 고향을 방문하면 그 변치 않은 풍경속 자신의 초기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어릴때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ㆁㄴㅁ는 '메인용도가 받침用이야' 라고 배우지 않치만 本家의 할배는 그리 적고 있으며, 종성에 ㆆ/ㅎ이 왔을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대입국어 수능시험 볼 때까지도 고민없이 살아왔다. 신들의 말씀을 한치의 틀림없이 섬세하게 전하려는 노력은 브라만 승려가 데바나가리를 익히는데 10년 공부를 하게 만들었으나, 한글 말고 영어시험도 봐야 하고 chat-GPT가 뉴스기사도 써주는 시절에 문자학습에 할애할 시간은 짧으며, 데바나가리 말고도 몇일안에 당장 배우고 익혀써야 할 업무용 스킬들이 넘치는 바쁜 시대를 우리는 살고있다.



인간의 조음기관이 내는 소리의 디테일 하나하나를 붙잡고 묘사하는데 산스크리트어처럼 FM대로 천착한 시스템은 없을 것이다. 동네아저씨의 말소리가 아니라 신이나 부처의 말씀이라 여겼기에 그런 노력이 가능했겠지만, 현대사회는 스마트폰을 켜면 로딩 무거운 비트맵(BMP) 이미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Jpeg같은 효율적인 압축 포맷이 주류가 되었다. 수천년전 인도 고승이 만든 1000여자가 넘는 데바나가리와 1890년대부터 유럽의 음성학자들이 만든 100여자가 넘는 IPA(국제음성기호)는 둘다 벅찬 갯수지만 전세계의 다양한 소리를 어떻게 표기할 지 우리의 이해를 넓혀준다. 正音 28자의 구조 또한 그것을 거울삼아 비추어 보았을때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인류의 조음DNA는 모두 같기 때문이다.